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5년 5월 12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6장

담당: 홍보실 한인석 전문원

전화: 02-3701-7377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 고동을 불어라』 서평회 13일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3일(수)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연세대 국문학과 정과리 교수의 저서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 고동을 불어라』를 주제로 '제 2회 아산서평모임'을 개최한다.

정수복 작가의 사회로 정과리 교수가 발제하며 김기봉(경기대학교 사학과), 김홍중(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 윤정로(KAIST 인문사회과학과), 이영림(수원대학교 사학과), 이항직(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교수 등 각계 학자들이 서평위원으로 참여한다.

*3월 11일 제 1회 모임을 시작한 '아산서평모임'은 5월 13일, 7월 15일, 9월 16일, 11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는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 / 02-3701-7377)로 **13일(수) 오전 10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제1회 아산서평모임》 행사개요

*[참고 자료2] 정과리 교수 약력

*[참고 자료3]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 고동을 불어라』 책소개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제 2회 아 산 서 평 모 임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 고동을 불어라 내가 사랑한 시인들, 두 번째』
(문학과지성사, 2014)

일시: 2015년 5월 13일 (수) 6:30pm-9pm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갤러리

주관: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

18:30~19:00	저녁식사	
19:00~19:05	인사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9:05~19:10	시 낭송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19:10~19:45	발제 및 지정토론	
발제 및 지정토론	사회자	정수복
	발제자	"문학비평이 하는 일"
		정과리, 연세대학교
	토론자	"역사의 종말과 문학의 부활 -역사와 문학의 관계의 재구성"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회적인 것과 시적인 것의 희한한 만남"
		김홍중, 서울대학교
19:45~21:00	자유토론	

정명교(필명 정과리) 교수 약력 소개



정과리 교수는 1958년 대전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천비평문학상,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제13회 대산문학상 평론상과 제16회 김환태평론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불문과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조세희론」이 입선하여 평단에 나왔으며, 저서로는 『네안데르탈인의 귀환 - 소설의 문법』, 『네안데르탈인의 귀향 - 내가 사랑한 시인들·처음』, 『문학, 존재의 변증법』, 『존재의 변증법 2』, 『스밈과 짜임』, 『문명의 배꼽』, 『무덤 속의 마젤란』,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 『글숨의 광합성』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현대시에서 서정성의 확대가 일어나기까지」(2006), 「치유로서의 예술—황순원의 『소리 그림자』의 경우」(2005), 「한국적 서정의 정신 작업—박재삼의 시 한 편을 예로 들어」(2003) 등이 있다.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뽕 고둥을 붙어라 내가 사랑한 시인들, 두 번째』
(출판사서평)



한국 문학비평의 미학적 수준을 대표하는 평론가 정과리,
한국 현대시의 지형도를 완성하다!

『무덤 속의 마젤란』(1999), 『네안데르탈인의 귀향』(2008),
『1980 년대의 북극꽃들아, 뽕고둥을 붙어라』(2014)로 이어지는 3 부작 완성

불문학을 토대로 한 경계를 알 수 없는 해박한 지식, 정교한 논리, 강렬하고 유려한 매혹의 문장이 어우러진 비평으로 한국 문학비평의 미학적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평론가로 손꼽히는 문학평론가 정과리(연세대학교 국문과)가 새 평론집 『1980 년대의 북극꽃들아, 뽕고둥을 붙어라—내가 사랑한 시인들·두번째』(문학과지성사, 2014)를 출간했다.

해박한 지식, 정교한 논리, 강렬한 문장이 조화를 이룬,
1980 년대 그림고 신비로운 이름-시들에 대한 연정(戀情)의 일지

1979 년 재학생 신분으로는 드물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조세희론」으로 입선하며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시작한 정과리는 이후 35 년간 국내외 문학과 서양철학은 물론, 인문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탁월한 컴퓨터

운용자로서 현대문명과 정보화 사회의 의미망을 탐문한 데서 기인하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폭넓고 세밀하게 한국문학을 읽고 비평해온 우리 시대의 대표적 문사이자 지성이다. 계간 『문학과지성』을 이은 계간 『문학과사회』의 편집동인으로 오랫동안(1988~2004) 한국문학 현장의 담론을 선도해온 장본인이자, 시의 기원을 묻는 이론적 검토와 철저한 논리, 복합적인 겹눈의 시선을 매개로 한 ‘공감의 비평’으로 정평이 난 그가 『글숨의 광합성—한국 소설의 내밀한 충동들』(2009) 이후 5 년 만에 묶어낸 『1980 년대의 북극꽃들아, 뽕고둥을 불러라—내가 사랑한 시인들·두번째』는 그 부제가 가리키듯, 2008 년에 선보인 『네안데르탈인의 귀향—내가 사랑한 시인들·처음』에 이어 한국 현대시사를 수놓은 별들의 족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귀향』이 김수영, 고은, 정현종, 황동규, 오규원 등 60~70 년대를 풍미했던 시인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은 1970 년대 말에서 1980 년대 말 사이에 등단한 시인들, 이른바 격동의 80 년대를 숨 막히는 걱정과 자신만의 언어로 살았던 시인들—이성복, 황지우, 김혜순, 최승자, 고정희, 김정한, 최두석, 김영승, 김승희, 김정란, 송재학, 백무산, 황인숙 등의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의 발간으로 『네안데르탈인의 귀향』과 1990 년대 시인들의 작품론만을 따로 묶었던 『무덤 속의 마젤란』(1999) 사이에 부재했던 다리가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욕망-기법-서사의 틀로 훑아보는 집요한 시(詩) 읽기, 문학의 사회적 지평을 다시 열고픈 열망

1 부는 최근 국내외 문학사회적 정황을 조망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지형, 문학 창작과 문학 비평의 지위를 묻는 이론적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함께 거론한다. 모두 이 책의 존재 근거를 선명하게 밝히는 글들이다.

가장 최근에 씌어진 「문학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야 할 때」(2014)에서 저자는 반세기 전, 문학은 언제나 사회의 거울이고 사회 변화의 시험장이었는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세계의 문학은 대부분 개인의 사적인 삶으로 선회했음을 지적한다. 한국문학 역시, 80 년대 말 민주화의 개시와 더불어 가속화된 소비사회로의 진입이 사실상 ‘개인의 폭발’을 불러왔고 대신 현실참여의 민중문학과 언어탐구가 동반추락하는 현실을 속절없이 목도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개인 체험의 묘사나 내면에 대한 탐구 혹은 영성의 발견에 현실(사회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존적 개인의 삶이 세계의 변화에 작용하지 않는 한, 그러한 문학이 사회적 지평을 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정과리의 논지이다. 사유를 담보한 예술과 문학은 표현의 세공을 부추긴다. 그는 “미래는 전적으로 우연의 영역에 속하며, 실로 우연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큰 원동력의 하나”라는 한나 아렌트의 언급에 착안하여, 우리가/문학이 역사를 성찰하고 사회적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우연적이고 이질적인 ‘나’들의 미묘한 관계를 따져 헤아리고 그 알고리즘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문학작품이 담고 있는 복합적 시선들의 중첩, 변화와 갱신을 모색하는 생체험에 대한 복기임을 환기시킨다.

「서러움의 정치학—시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과/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한 사색」(2013)은 문학이 문화로, 문화가 한류로 이동하고, 인문학이 부가가치를 낳는 창의적 산업이론으로 전략하는가 하면, 잘 팔리는 대중문학이 문학적 가치까지 독식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저자는 이 가운데 가장 혹독한 운명을 겪은 것이 시라고 지적한다. 모든 현실적 구속들과의 투쟁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시가(보들레르), 시 외의 어떤 다른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던(논어) 바로 그 시가 미디어에 포박된 주관성의 사회(기 드보르의 ‘스펙터클의 사회’)에 노예로 포박된 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덧없음 속에서 우발적으로 선택하는 신중 자유들”이 판치는 현 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세계의 구성적 기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운동을 성찰하는 주관성의 존재론”이며, “그것만이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꺼안은 성숙한 태도이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도취로 빠져들게 하지 않고 세계와 이성적으로 대결하는 건강한 주관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쯤에서 도출되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체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비평글들, 특히 황지우 시집 『나는 너다』(1987)와 시극 『오월의 신부』(2000) 반복적 읽기에서 밝혀지듯] 1980 년대 문학이 제기했던 문제, 바로 그것임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

지면으로 처음 발표되는 「추상적 민중에서 일상적 타자로 넘어가는 고단함」(2013)은 황지우의 『나는 너다』가 씌어진 까닭과 씌어지는 과정이 당대(1987 년 6 월 항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간)의 문제 들의 한계 혹은 가능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분석하는 글이다.

우리를 감전시킨 그림고 신비로운 이름들

그들의 시를 풍요하게 읽는 법을 읽다!

2 부와 3 부는 1 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 다시 말해 “현실사회주의의 철저한 몰락 이후 혹은 욕망 사회의 도래 이후 1980 년대의 막바지에서 정지된 그들의 작업은 그 시효가 상실되었는가”를 반문하며 동시에 그렇지 않음을 역으로 증명해내는 저자의 고집스런 글쓰기라 할 만하다. 위 질문 속에서 80 년대 시인들(이성복, 황지우, 김혜순, 최승자, 김정환, 최두석, 고정희, 김승희, 김정란, 김영승, 송재학, 황인숙, 백무산, 고희열, 정일근, 원구식)은 하나하나 여기로 불러와 분석되고 해석된다. 정과리는 이들이 존재의 질료인 언어로 호흡하고, 그를 통해 삶을 주어진 관념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더욱 생생하고 풍요롭게 되살아보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말한다. 단어와 시구를 집요하게 틀어쥐고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변증적 ‘원환’의 관계를 짚어가는 저자의 필력은 이번 책에서도 여전하다. 이 작품론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삶을 신생(新生)으로 되돌린다는 문학의 진실, 언어적 감각과 예술적 안목, 표현 충동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의 열망을 품었던 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

정과리는 서문에서 1980 년대 문학을 “내 문학의 뿌리”라고 정의한다. 하여 수많은 일화와 풍문을 통해 마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나 술한 ‘후일담’처럼 소비되는 이른바 흔적 즈려뺏기 식의 1980 년대 문학 접근을 경계한다. 앞서 발표한 책들에서 정과리는 자신의 비평적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공감은 작품이란 거대한 세계와의 내밀한 대화이자 거친 씨름이다.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 작품 속에 진입하고, 작품을 더 깊이 느끼려 이론을 쓰다듬는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육체적·성애(性愛)적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 작품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뜯아보는 정과리식 공감의 비평은, 지금껏 우리가 술하게 봐온 이론의 피상적 답습이나 성근 분석, 그럴듯한 미문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식들을 하나둘 감아올린다. 멀게는 1988 년에서 가깝게는 2014 년 벽두에 씌어진 18 편의 작품론들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이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으며 때로 어떤 것들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한데 모였다가 마음속에 파도치는 풍경을 선사한다.

4 부에 단독으로 묶인 「그리움의 자리—이성복 형에 대한 기억」은 시인 이성복과의 오랜 문우지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고백록이면서 동시에 들끓었던 지난 동세대의 문학과 시인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의 연서로도 읽힌다. 랭보의 시구에서 빌려온 제목의 한 귀퉁이, “북극꽃”들에 담긴 저자의 애뜻함과 재기만큼이나 솔직한 글이다.